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성경적 교훈을 지키라**

[살후 2:13-14]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목표에 대해 증거하였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원을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즉 태초에, 창세 전에 (엨 1:4)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행위이다. 로마서 9:16, “[선택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3:5). 사도 바울은 디도서 3:4-5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구원(중생)은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구원은 진리 곧 ‘구원의 복음’(엨 1:13)을 믿음으로 얻는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진리이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 안에서 부르신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성화의 완성 곧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 로마서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 보서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다. 하나님의 선택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복음 진리를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도,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도 다 놀라운 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이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라는 뜻이다. 성도들의 성화(聖化) 생활을 위한 모든 교훈과 권면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과 약속된 영광에 대하여 그들편에서 마땅히 응답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할 바인 것이다.

우선,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자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다. 누가복음 1:4, “이런누가복음을 쓴 목적인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6:10-11, 13-14,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이라. . .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또 우리는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유전(遺傳), 곧 사도들을 통해 전해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말로’ 직접 들은 것이든지, ‘편지로’ 받은 것이든지 다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사도들의 교훈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엡 2:20).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적 교훈은 개혁신학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며 옛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진리와 모든 교훈들은 불변적이고 영원하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以信稱義)로 표현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누가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1:8-9). 또 요한계시록 22:18-19는 그 책에 기록된 종말 예언에 무엇을 가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들이 교훈한 이 역사적 기독교, 개혁신학, 옛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보수신앙의 본질이다. 기독교는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종교가 아니고 옛 것을 지키는 종교이다. 우리는 이 옛신앙을 귀히 여기며 보수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전통들을 버려야 하고 성경을 떠난 모든 종류의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즉 사도적,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만을 믿고 보수해야 한다.

[16-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말과 일에](전통사본)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곧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 같고 인생의 행로는 고생과 수고가 많으며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선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엡 2:10; 딤후 2:14).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우리를 굳게 하시기를 기원한 것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 전의 은혜의 선택에 근거하였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얻었고 장차 부활과 변화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 즉 성경적 교훈, 개혁신학, 옛신앙을 확신하고 보수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지키는 보수 신앙과 보수적 바른 교회의 건립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개혁신학의 유산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적 교훈, 즉 전통적, 정통적 바른 교훈을 확인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우리를 굳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심신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 모든 선한 말과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형 에서를 만남

[창 33:1-4]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세 무리로 나눈 것은 그가 아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가 형 에서를 향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힌 것은 그의 겸손과 자신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진심의 사과를 나타낸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궁극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으니 축복받을 정당성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잘못이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간의 혹독한 고난을 통해 확실히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며 겸손해졌다고 보인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며 피차 운 것을 보면,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졌다. 동생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사라졌다. 이것은 하

나님의 은혜이었고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이는 하나님 이시다. 또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신 이도 하나님 이시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었다.

[5-7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중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이다(시 127:3).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또 그는 에서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히 불렀다. 본장에서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다(5, 14절). 아내들과 자녀들은 나와 절 하였다.

[8-11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할 때 받으니라.

‘내 주’라는 말(아도니 יְהוָה)이 본장에 다섯 번 나온다(8, 13, 14, 14, 15절). 이것은 야곱의 겸손함과 동시에 형 에서에 대한 그의 진심의 뉘우침을 나타낼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형을 ‘내 주’(나의 주)라고 불렀다. 야곱은 겸손한 자가 되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고 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오히려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는 귀한 인격이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0:26-27). 또 야곱이 강권한 선물은 진심의 선물이었고 에서는 그것을 받았다.

[12-14절]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말하였다. 사람은 연약하여 용서하면서도 약간의 감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에서의 감정이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곱은 겸손히 이해를 구하며 사양했다. 야곱은 본문에서 에서를 ‘내 주’라고 세 번 불렀고 자신을 ‘그의 종’(원문)이라고 불렀다. 잠언 15:1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한다.

[15-17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내가 내 종자 몇 사람을 네게 머물리라”는 제안도 야곱은 겸손히 거절하였다. 어려움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야곱은 그 고민스러운 문제를 극복했다. ‘숙곳’은 ‘천막’이라는 뜻이다. 거주할 천막이나 집을 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적, 환경적 안정을 얻었다는 뜻일 것이다.

[18-20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¹⁾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밧단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쳤다. 고대 헬라이어 70인역과 라틴어 벌케이트역과 킹제임스 영어성경(KJV)은 ‘평안히’라는 원어(살렘 שָׁלוֹם)를 ‘살렘’이라고 읽어 본문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 즉 세겜 성에 이르러”라고 번역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살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 셈이다(창 14:18; 33:18). 근래의 영어번역들은 그것을 한글개역처럼 ‘평안히’라고 번역했지만(NASB, NIV), ‘살렘’이라는 고대 번역이 옳을지도 모른다.¹⁾

야곱은 세겜 성 앞에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샀다. ‘은’이라는 원어(케시타 קֶשֶׁת)는 당시의 무게 단위인데, 은인지 금인지 분명치 않다(BDB, KB). 거기에서 야곱은 단을 쌓았다. ‘단’(미즈베아ק מִזְבֵּעַ)은 ‘짐승 제사를 드린 단’을 암시한다. 단을 쌓은 것은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섬긴 것을 뜻한다. 그것은 야곱의 경건을 나타낸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1) ‘평안히’라는 일반적 표현은 베살렘 בֵּשֶׁלְשָׁן 일 것이다(창 15:15).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창 8:20), 아브라함은 여러 번 단을 쌓았으며(창 12:7, 8; 13:18; 22:9), 이삭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창 26:25). 이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야곱은 에서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였다. 야곱은 겸손과 진심의 회개를 하였다. 그는 에서에게 일곱 번 절하였다. 그는 자신을 두 번이나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다(5, 14절). 또 그는 형 에서를 다섯 번이나 ‘나의 주’라고 표현했다(8, 13, 14, 14, 15절). 그는 형에게 정성의 예물을 주었다(8절). 그는 그를 용납하는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같이 기쁘다고 말했다(10절). 그는 그의 예물들을 사랑하는 형에게 강권하여 받게 했다(11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과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는 야곱에게 “[너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창 31:3). 에서는 눈물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그를 받아주었다(4절). 그는 야곱 일행의 앞잡이가 되지도 않았고(12절) 야곱의 강권하는 예물들을 받았고(11절) 그의 종들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지도 않았다(15절). 또 야곱은 집과 가축들의 우릿간을 지었고 약간의 땅도 샀다.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20절,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야곱에게 문제의 해결과 평안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므로 항상 기도의 응답과 그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수요일 설교

화 있을진저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예고이었다.

[사 5:18-19]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됨과 죄악된 행위를 지적한다. 구약교회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은 불의와 죄악과 거짓으로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조롱하듯이 말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었다.

[20-23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24-25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 . .

[26-30절] 기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시어서 먼 나라들을 불러와 그들을 치실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경고하신 대로이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그들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멸망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었다(14-17, 31-33, 37-38절).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다. 신약성도가 범하는 죄도 구약성도가 범하는 죄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모든 죄는 다 악하고 공의로 보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고 따르는 것이며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다.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말씀이며 부수적으로는 이성과 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경말씀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고 술 취하지 말고 결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된다.

책안내

-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